

생은 비슷한 분포를 보여준다.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사스레피 등 상록활엽수림과 개서나무, 졸참나무가 우점하는 낙엽활엽수림대가 섞여서 분포하는 혼효림을 형성하고 있다.

상록활엽수림에서 많이 분포하는 우점 수종은 붉가시나무라는 사실이 자주 확인된다. 붉가시나무는 수형이 웅장하고 수간이 똑바르게 자라 목재가치가 뛰어난 수종이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주범인 탄소 흡수력이 좋아 조림수종으로 가치가 뛰어나다. 한라일보사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서귀포연합청년회는 남원읍 한남시험림에 붉가시나무 조림을 연례행사로 실시하고 있다.

서어나무와 졸참나무 등의 낙엽활엽수림이 우점하는 환상숲길에선 예전에 대규모 표고재배가 이뤄지다 철수한 재배장도 있는가 하면 지금도 몇 군데서는 재배가 진행중이다. 서어나무와 졸참나무는 표고버섯 자목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강영제 연구사는 "한라산 환상숲길은 대부분 600~700m의 길로 앞으로 이어질 환상숲길도 비슷한 식생구조를 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혼효림 속에서 동백은 변함없이 자태를 뽐낸다. 붉가시나무 등 우점하는 수종에 견줘 키가 크지 않고 지천에 흐드러진 붉은 동백꽃을 볼 수 없는 게 아쉬움이다. 하지만 동백꽃을 피우는 시기가 초겨울부터 봄까지 길어 동백숲 가꾸기를 통해 생육여건이 좋아지면 붉은 꽃을 많이 피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환상숲길 학술조사팀에 따르면 예전에 이 환상숲길은 목장지대로 화전농사, 목축, 인근 자연마을의 땀감 채취가 활발히 이뤄져오다 정부의 화전 금지와 산림보호정책이 강력하게 시행 후 서서히 회복되면서 천연림을 이룬 곳이다. 따라서 동백나무도 1960년대 이후쯤부터 자연식생이 회복되면서 50여년에 걸쳐 현재의 대규모 군락지를 이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환상숲길에선 드물게 나타나는 커다란 붉은 소나무숲을 만나는 재미도 안겨준다. 햇볕을 받아야 자라는 소나무의 특징을 감안할 때 소나무숲이 형성된 곳은 과거 개활지였거나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임을 말해준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 한라산 동백나무 이야기

한라산 난대림 내 대표 수종 '동백'

녹색.생태관광 상품 개발 가능성



흔히 여수의 '오동도' 하면 동백나무를 떠올린다. 남쪽바다 쪽빛과 잘 어울려져 진홍빛으로 피어난 동백꽃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가수 이미자님의 '동백아가씨'를 흥얼거리며 낭만에 취하는 장소로 여수 관광의 일번지라고 할 수 있다. 겨울에 피는 꽃이라 하여 동백, 혹은 바닷가에 피는 붉은 꽃이라 하여 해홍화(海紅花)라 부르는 동백은 남쪽지역을 대표하는 나무이다.

동백나무는 식물분류학상 차나무과의 동백나무속에 속한다. 이 나무가 속한 차나무과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차나무(녹차)를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종이 열대지방, 특히 미주와 아시아 지역에 집중 분포한다. 이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식물구계를 설정할 때 극동지역 즉 동아시아지역에서 난대지역을 대표하는 수종이며 일본 중국, 한국의 남부지방에 분포하며 약 100종 이상이 원예용으로 개발되어 있다.

동백나무의 외형적 특징은 잎이 윤기가 나며, 상록성이고 나무줄기는 흰 색에 가까운 회갈색, 소지는 갈색이다. 잎은 어긋나고 모양은 계란형 또는 넓은 계란형이고 소지는 갈색, 꽃은 붉은 색인데 드물게 흰색 또는 연분홍색이 발견되기도 한다. 나무 높이는 보통 7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크게 자라는 나무는 높이 12m 정도 자라고 가슴둘레도 30~40cm까지 자라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동백의 분포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가 주를 이루는데 서해안에서는 이북 장산곶 맞은편 백령도 옆 대청도가 북한계선이고 동쪽은 울릉도가 가장 북쪽이다.

또한 동백은 아름다운 꽃만이 아니라 열매를 이용한 동백기름이 식용, 약용, 그리고 화장품이 없던 시절 여인들이 머리를 매만지던 머릿기름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동백나무 자생지 하면 대부분 선운사, 거문도, 오동도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은 이 나무가 제주도 한라산 난대림 지역에 대표적인 수종이란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귀포휴양림에서 수악교에 이르는 숲길을 걸어보면 약 15~20km 길이의 동백나무 숲을 만난다. 지천에 널린 나무가 동백이고 밟히는 것이 떨어진 동백꽃이다. 붉가시나무와 같은 교목층의 우점으로 피압되어 있기 때문에 흐드러진 동백꽃을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숲가꾸기로 얼마든지 동백나무 균락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봄이 빠른 서귀포, 그리고 동백 꽃길... 얼마든지 녹색관광, 생태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조합이다.

동백꽃 사이로 걸어가는 한라산 숲길은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다.

<강영제.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